

결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 결혼식 주례 단상

김학순 |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얼마 전 난생 처음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게 되었는데 황당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지만 결혼에 대한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결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며 짝지워진 배우자를 비교하지 말고 최상급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 난생 처음 주례를 맡다

얼마 전 난생 처음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을 때의 심경은 황당, 혼란, 착잡함의 교직(交織)이었다. 뇌리를 스치는 첫 감응은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였다. 머리카락에 서리가 약간은 내렸지만 아직 얼굴은 40대 중반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온 필자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사실 예전 같으면 50대 초반에 접어든 나이로 주례를 서는 일은 그리 이르지도 않다. 해서 생각은 다음 단계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경륜과 자격은 충분한가. 그것도 적잖은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엔 대학 은사 같은 분을 먼저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직장 후배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마냥 뿌리치는 것도 도리는 아닐 것 같았다. 사내결혼에다 신랑신부 모두 내가 6개월동안 열정을 쏟아 수습기자 교육을 시킨 입사동기여서 더욱 그랬다. 회사에서는 사장을 비롯한 대선배들

이 많은 점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으나 신랑신부가 나를 택한 까닭을 듣고 용기를 냈다. 일단 승락하고 만 것이다.

막상 주례를 맡고 보니 주례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남의 집 대사를 그르치지 않는지, 혹시라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떨지는 않을지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것보다 흔히 비판받는 '주례사비평'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상투적인 당부에 그치지 않는, 평범 속의 비범을 찾아보고 싶었다.

## 결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궁리를 하다 보니 여운이 오래 남는 결혼식 주례사가 문득 떠오른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민주인사의 결혼식이었다. 주례도 수많은 풍상과 고난을 겪은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였다. 의례적인 구절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

만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대목이 촌철살인(寸鐵殺人)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이 결혼은 어느 한 쪽이 먹거나 먹히는 흡수통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고무찬양하면서 정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신이 살아온 풍습과 생각대로 살기를 강요하면 가정은 갈등과 전쟁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 식으로 흡수통일하려 들면 평화가 깨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결혼생활에선 아무리 찬양 고무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러 올 사람이 없다.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결점을 살살이 뒤져봐야 하지만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결점보다 장점을 더 높이 사야한다는 점이 공통분모인 셈이다. 두 눈을 반쯤 감고 뜬 눈으로는 서로의 사랑을 찾고, 감은 눈으로는 서로의 결점을 가려주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형태이기도 하다.

### 최상급으로 짝지워준 사람을 비교해서야

분자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의 주례 말씀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남녀 관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에고(ego)가 강해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니 서로 찌르는 얼음 같은 관계, 서로 내실없이 걸돌기만 해 허망할 뿐인 연기 같은 관계, 마지막으로 서로 스며들고 상대의 그릇에 맞출 줄 아는 물 같은 관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연



히 세번째 관계지요. 사람도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 만남 자체에 도취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고체, 기체, 액체 가운데 액체 같아야 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다만 물과 기름의 관계 같은 상극 액체로 있어선 안된다.

정확히 누구의 주례사인지는 기억해 낼 수 없지만 가정을 꾸려가면서 명심해야 될 만한 대목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 세 가지는 비교하지 말라. 자기 부모를 남의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견주지 말며,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짝지워준 사람을 '비교급'으로 격하시켜서야 되겠는가.

주례 승락으로 자연히 20년이 넘는 내 결혼생활도 반추해 보게 되었다. 맞닿은 두 나무의 세포가 서로 합쳐 하나가 되는 이른바 '사랑나무'인 연리지(連理枝)처럼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 같은 결혼생활이 넘쳐나는 신세대 부부들에게 연리지는 고사여나 나오는 자연 교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말이다.